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참다운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참다운 공산주의도덕관을 세우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8권 32페이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수령을 생전과 다름없이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참다운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이 참다운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최고의 도덕의리이기때문이다.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수령에 대한 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그것은 수령이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수령과 혁명가들,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紐대는 생전이나 서거후나 같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이러한 참된 충실성은 환경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높이 발현된다.

수령이 서거한 후에도 수령을 변함없이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의 품속에서 성장한 수령의 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발현으로 된다.

수령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혁명을 승리로 령도하는 전력사적과정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다.

혁명위업의 개척으로부터 승리에로의

력사적과정에서 이룩되는 수령의 혁명업적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수령의 령도풍모와 인덕뿐만아니라 혁명의 미래에 대한 수령의 숭고한 리상과 구상이 담겨져 있다. 수령의 혁명업적은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여온 혁명의 력사적과거의 빛나는 상징으로 되는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귀중한 밑천으로, 만년재보로 된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부모를 따르고 잊지 못해하는것처럼 인민은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맡아 보살펴주고 참된 삶을 꽃피워나가도록 하여준 수령의 은덕을 언제나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게 된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준 수령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며 서거후에도 수령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수령을 영원히 따르는 고결한 마음은 유훈관철에서도 표현된다. 그것은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혁명전사들의 가장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에서 흘러나오는 참다운것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세대뿐만아니라 우리의 후손만대가 자주적인 인민으로 살아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천대받고 억눌렸던 우리 인민을 힘있는 존재로, 자주적인민으로 내세우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

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류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류의 념원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리상사회를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러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어둠을 밝혀주고 생을 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분들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와 함께 영생하신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운명의 영원한 수호신이시고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오늘도 수많은 귀중한 선물들을 드리고 각종 명예칭호와 훈장들을 수여해드리고있다.

참으로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혁명가들과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이 참다운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수령영생위업실현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참다운 도덕관을 지닌 진짜 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기때문이다.

수령영생위업실현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반혁명적립장,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은 수령의 서거이후에도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에게 충정다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긴다. 이와 반대로 수령의 생존시에 걸으로는 수령을 받드는척 하고 혁명위업에 충실한척 하면서 속으로 판꿈을 꾸며 뒤에서 판장난을 하던 야심가, 음

모가들은 수령의 서거이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수령의 생존시에는 간신, 혁명의 배신자를 가려보기 힘들다.

혁명가와 배신자는 어떤 도덕관을 지니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지게 된다. 참다운 도덕관을 지닌 사람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사상과 투쟁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지만 참다운 도덕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혁명선배도, 그들이 이룩한 혁명업적도 모르는 비렬한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관에 기초하여 행동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도덕관이 다같은것은 아니다.

사회발전의 력사적단계에는 그에 대응하는 유형의 도덕이 있게 되고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을 가지게 되며 사람들의 의식수준, 특히는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에서의 차이가 있게 된다.

세계관은 도덕관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도덕관이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는것은 세계관이 도덕관의 사상리론적기초로 되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수령은 비록 서거하였지만 영생한다는것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도덕관을 지닌 혁명가가 된다. 수령의 서거를 모든것의 끝으로 보는 비렬한 도덕관을 지닌자들이 바로 가짜 혁명가들, 혁명의 배신자들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신념과 량심으로 하는것이 혁명이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것이 혁명투쟁이다. 수령은 영원하다는 신념, 변함없이 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겠다는 깨끗한 량심,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의지는 수령의 서거후 혁명앞에 가로

높이는 난관과 시련을 완강히 뚫고나가게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령이 베풀어준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배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양심도 의리도 저버린 추악하고 너절한 배신자들은 서슴없이 혁명을 배반하고 수령을 모독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

배신자들은 수령의 생존시에는 수령과의 관계에서 도덕관이 투철한것처럼 행동하지만 수령의 서거이후에는 정신도덕적취약성을 날날이 드러낸다.

특히 수령영생문제에서 이자들은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빗내이는 길로가 아니라 그 말살어로 공격의 화살을 집중한다. 지어 수령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는것마저 반대하며 수령의 령구에까지 더러운 손을 대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한다.

이자들은 자기 주위에 사상이 건전치 못한자들, 아첨쟁이들, 타락분자들을 끌어당기고 환상을 조성하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금이 가게 하고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탈취음모까지도 꾸미는 등 반당, 반혁명적행위를 일삼는다.

바로 이런자들을 적발숙청하여 혁명대오안에 수령을 대하는 참다운 도덕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명백하여야 한다.

수령영생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바로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인것으로 하여 혁명대오안에 참다운 도덕관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근본척도로 되는것이다.

수령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우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의 영생실현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사람, 수령의 유훈관철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사람은 참다운 도덕관을 지닌 혁명가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자들은 혁명의 배신자들이다.

력사는 혁명의 배신자들을 옳게 가려보

고 이자들을 제때에 적발숙청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혁명가들의 도덕의리가 우롱당할수 있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세계사회주의운동사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가들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는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참다운 혁명가들을 수많은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력사에는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였던 쓰딸린이나 주은래, 텔만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도 수령의 사랑과 은덕을 배반한자들, 참다운 도덕관을 지니지 못한자들이 추악한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다.

베른슈타인과 카우쯔끼로부터 프로쯔끼와 부하린, 흐루쑤브와 고르바쑤브, 엘찐에 이르기까지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 나타난 변절자, 배신자들은 모두가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손길아래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혁명》을 하던자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수령의 서거이후 자기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냈다. 베른슈타인과 카우쯔끼는 엥겔스의 생존시에 겉으로 충직한척 하다가 그가 서거하자마자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스승을 배반하고 그의 녀마저 짓밟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프로쯔끼와 부하린은 레닌에 대한 《충실성》을 떠들다가 레닌이 서거하자 충실성을 부르짖던 때가 언제였던가싶게 반레닌주의기치를 들고 쓰딸린을 반대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양심도 의리도 없는 변절자들의 본색은 흐루쑤브와 고르바쑤브에게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났다.

쓰팔린의 생존시에는 그를 《위대한 스승》, 《인류의 탁월한 천재》, 《위대한 군사 전략가》라고 칭송하면서 자신을 그의 《충실한 제자》로 자처하고 《100% 쓰팔린분자》로 위장해온 흐루쇼브는 쓰팔린이 서거하자마자 180°로 돌변하여 100% 반쓰팔린분자로 둔갑하였으며 《개인미신》반대소동을 벌려 그를 《당과 국가의 집체적령도 원칙을 무시》한 《독재자》, 준법성을 위반한 《형사범》, 《군사지도도 볼줄 모르는 저능아》로 헐뜯는것은 물론 당과 국가에 충실한 사람들을 수많은 죽인 《살인범》으로 낙인하고 무엄하게도 그의 시신을 불태워 버리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쏘베트사회주의제도밑에서 당과 수령의 은덕을 받으며 자라난 고르바초브는 레닌의 반신상앞에서 《쏘련당과 쏘련인민, 위대한 레닌의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겠다고 한 《맹세》의 침방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레닌과 쓰팔린 그리고 로세대 혁명가들을 원쑤로 치부하고 그들의 업적을 깎아내리는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인 쏘련공산당과 쏘베트국가를 악랄한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붕괴시켰다.

그리하여 혁명의 배신자들은 온 세계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앞에서 혁명적신념은 고사하고 인간의 량심과 의리마저 송두리채 집어던진 인간추물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회주의도덕은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도덕이며 여기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 나타났던 수정주의자,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도덕을 심히 훼손시켰으며 세상사람들에게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선배도 모르고 서로 물고뜯는 사람들인것 같은 나쁜 인상을 주었고 그 여운으로 하여 오늘도 일부 나라들에서는 반사회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서거한 수령들이 모독당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는 나날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끝없는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온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수령님과 다름없이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최고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모신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세계사적인 모범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펼쳐진 수령영생위업 실현과 수령을 변함없이 충정으로 받들어모시는 현실은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 참다운 도덕관을 확립하는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생존해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의 태양, 생명의 은인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갈것이다.